



October 1994(창간호)

#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

The Newsletter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발행인 : 곽 동 일 발행처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864-5111(교)278 FAX: 852-1937·계간지

## 권 두 연

### 노인에게 꿈과 미래가 있는 삶을 ...

郭 東 日 (대한노인정신의학회장)

오래 전부터 '노인복지의 천국'이라고 하는 유럽이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폭발적으로 늘어만가는 재정부담 때문에 연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각국 정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각국 정부들은 국가 경쟁에 회복을 위해 부득이 복지 비용을 감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소위 선진국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서 본받을 것은 배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우리 복지 체제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노인 인구 5.5% (65세 이상, 약 2,450,000)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인복지 법의 제정, 노인 헌장의 제정, 노인 건강 진단사업의 실시 등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건·의료적 측면에서의 정책추진은 미흡했다고 하겠다.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1996년까지 '노인 건강 관리법'을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노인병 관리, 치료 그리고 재활 등을 국가 차원에서 전개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고 그 기대 또한 크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일본의 1960년대, 구미의 1940~50년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도 2005년에는 고령화 사회의 기준점인 7%를 상회할 것이고, 2020년에는 12.5%로 선진국형 고령화 사회를 맞게 될 것이다. 인구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산업화 후기의 부산물들, 도시 집중화와 함께 핵가족화한 가정, 정년제도의 강화,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노인부양 인력의 감소 등으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천국의 노인 주거형태, 노인병 실태 파악 및 질병 역학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우리나라 사회·문화·경제 수준에 알맞는 보다 내실 있는 노인 복지체제와 함께 의료체제를 확립하여 노인 인구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낱 구호로 끝나는 경노사상 고취가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 외로움, 질병 그리고 절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장치가 마련되어 꿈과 미래가 있는 제 3의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기존의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년학회 그리고 대한노화학회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정보 교환은 물론 학술교류를 통해 학술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정신의학 분야의 체계적 연구력을 선도하고 집중시켜서 회원간의 학술적 교류·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과 전문의에게 노인정신건강과 노인정신장애의 생물·심리·사회학적 진료 접근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노인정신과 전문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수련 제도를 마련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노인정책수립과정에의 자문, 공동연구 및 전문의견 제시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일반시민을 위한 정기적인 '노인정신건강' 강화를 통한 계몽, 의과대학생과 일반의사 또는 각 임상전문분야의 의사들에게 정상노화 현상과 노인정신장애의 감별, 특히 치매·우울증·양극성장애·정신분열병·불안장애·신체화장애 그리고 만성 알코올 중독 등에 관한 진료지침을 제공하는 교육사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노인정신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학회창립발기에 참여한 회원은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활동을 경주해 온 회원이나 새로이 관심을 갖는 회원들이 모두 열정을 갖고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 大韓老人精神醫學會 任員陣(1994)

|                  | TEL           | FAX      |
|------------------|---------------|----------|
| 會 長 : 郭 東 日(고려대) | 02)864-5111   | 852-1937 |
| 副會長 : 申 石 澈(충남대) | 042)253-6831  | 253-3287 |
| 李 正 浩(인제대)       | 02)938-0100   | 938-4109 |
| 監 事 : 鄭 聖 德(영남대) | 053)623-8001  | 628-8046 |
| 李 亨 榮(전남대)       | 062)220-6146  | 225-2351 |
| 總務部 : 鄭 寅 果(고려대) | 02)864-5111   | 852-1937 |
| 崔 仁 根(한림대)       | 02)633-9111   | 677-9095 |
| 崔 鍾 赫(서울국립)      | 02)457-0905   | 458-0731 |
| 金 隆 喜(용인정신)      | 0331)281-8251 | 281-8268 |
| 學術部 : 趙 孟 濟(서울대) | 02)760-2450   | 745-8998 |
| 金 昌 鉉(국립의)       | 02)265-9131   | 277-6589 |
| 金 乘 賢(고려대)       | 02)927-5111   | 927-2836 |
| 李 康 燮(안양정신)      | 0343)55-3333  | 52-4110  |
| 企劃部 : 吳 秉 勳(연세대) | 0347)61-1890  | 64-8662  |
| 奇 佰 錫(중앙대)       | 02)260-2114   | 279-8474 |
| 韓 一 宇(용인정신)      | 0331)281-8251 | 281-8268 |
| 李 義 相(연세대)       | 0347)61-1890  | 64-8662  |

-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임원진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회원으로서 책임을 준수하고 '노인에게 꿈과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심볼마크와 로고도입〉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내에 시대적 요청에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연구학회로 노인에 대한 인격적인 존엄성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하고자 한다.

심볼마크는 노년시기인 정점에서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통합과정과, 정신을 나타내는 뇌의 형태를 사랑의 이미지인 곡선으로 부드럽게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학회의 단결과 발전을 지향하는 안정적 기반형태를 이루고 있다.

제 작 : 김 경 종  
홍대미대교수 · 디자인 Camp 대표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94년도 추계학술대회

일 시 : 1994. 11. 18(금) 오후 2시-6시

장 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                      |  |                 |
|----------------------|--|-----------------|
| 13:00 - 14:00        | 등 록  |                 |
|                      |  | 사회 : 조맹제 (서울의대) |
| 14:00 - 14:10        | 개 회 사  | 곽동일(학회장)        |
| 14:10 - 15:00        | 특 강<br>노인환자에서 신경심리검사의 임상적용<br>(Clinical Application of Neuropsychological<br>Test in Elderly Patients) | 오병훈(연세의대)       |
| 15:00 - 18:00        | 주 제 발 표<br>노인환자의 정신상태의 평가<br>(Mental Assessemant of Elderly Patients)                                  |                 |
| 15:00 - 15:30        | 기분(Mood)의 평가   | 기백석(중앙의대)       |
| 15:30 - 16:00        | 인지기능(Cognition)의 평가  | 연병길(한림의대)       |
| - - Coffee Break - - |  |                 |
|                      |  | 사회 : 정인파(고려의대)  |
| 16:30 - 17:00        | 정신증상(Psychotic Symptoms)의 평가   | 김승현 (고려의대)      |
| 17:00 - 17:30        | 행동장애(Behavior)의 평가   | 김창현(국립의료원)      |
| 17:30 - 18:00        | 전체토의 및 질의  | 참석자 전원          |



## ● 총무부 소식 ●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경과보고

1. 1993년 10월 21일 대한 노인정신의학회(가칭)의 창립 취지에 대해 궐동일회원의 38명이 발기인으로 동참하였으며, 이 학회를 통해 국내 노인정신의학분야의 연구 활동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발기인 명단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강민희(충남대) | 강병조(경북대)  | 곽동일(고려대)  | 기백석(중앙대) | 김광일(한양대)  |
| 김명정(부산대) | 김승현(고려대)  | 김용희(용인정신) | 민성길(연세대) | 박두병(중앙대)  |
| 박영남(계명대) | 박종한(계명대)  | 백인호(카톨릭대) | 석재호(한림대) | 송지영(경희대)  |
| 신석철(충남대) | 연병길(한림대)  | 우행원(이화여대) | 유계준(연세대) | 은홍배(전북대)  |
| 이길홍(중앙대) | 이민수(고려대)  | 이상연(적십자)  | 이수일(한림대) | 이정호(인제대)  |
| 이형영(전남대) | 왕성근(충남대)  | 조두영(서울대)  | 조맹제(서울대) | 조숙행(고려대)  |
| 정성덕(영남대) | 정은기(서울국립) | 정인파(고려대)  | 지익성(충남대) | 한일우(용인정신) |
| 한홍무(동아대) | 함 옹(안양정신) | 홍관화(명지병원) | 황익근(전북대) | (가나다 순)   |

\* 연락처 : 고려대학교부속 구로병원 신경정신과 정 인 파

02)864-5111(교) 341

2. 1993년 10월 2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 학술 대회에서 창립 취지문을 배부하였고 90명의 회원 가입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3. 1993년 11월 27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발기인들의 창립 준비를 위한 1차 모임이 열렸습니다. IPA 회장을 역임한 Manfred Bergener 교수의 「노인 정신의학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곧이어 창립 준비 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준비 위원장에 궐동일(고려대학교), 간사에 정인파(고려대학교), 준비위원에 강민희(충남대학교), 김명정(부산대학교), 박종한(계명대학교), 은홍배(전북대학교), 이형영(전남대학교), 정은기(국립서울정신병원), 조맹제(서울대학교) 이 추천되어 1994년도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일정에 대해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 1994년 2월 15일 서울 수정궁에서 창립준비위원회 2차 모임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창립 총회 및 학술대회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1994년 4월 8일 인촌기념관(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내)에서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제는 전반부에 둘, 후반부에 셋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0.1



5. 1994년 3월 21일 노인정신의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알리는 초대장과 입회원서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회원에게 발송하였으며, 1994년 3월 28일에 이에 대한 포스터를 전공의 교육병원 및 종합병원에 발송하였습니다.
6. 1994년 4월 8일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가 고대부속 안암병원 대회의실(8층)에서 열렸습니다.
- 총회에는 42명의 회원이 출석하여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칙(6장 22조, 부칙 2조)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임원선출이 있었습니다.
  - 학술대회에는 120명이 참석하였고 I, II부로 나뉘어 I부는 「노인정신의학회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하에 3개, II부는 「노년기의 정신장애」란 주제하에 5개의 연제가 발표되었습니다.

| I 부 노인정신의학의 어제와 오늘<br>(좌장 : 이부영) |                         |
|----------------------------------|-------------------------|
| 3:00 - 3:30                      | 노인정신의학의 발달사<br>연자 : 신석철 |
| 3:30 - 4:00                      | 한국노인의 정신장애<br>연자 : 조맹제  |
| 4:00 - 4:10                      | 토론 및 질의<br>지정토론 : 김광일   |
| 4:10 - 4:25                      | 휴식(Coffee Break)        |

| II부 노년기의 정신장애<br>(좌장 : 유계준) |                             |
|-----------------------------|-----------------------------|
| 4:25 - 4:55                 | 노년기 치매의 진단과 치료<br>연 자 : 박종한 |
| 4:55 - 5:00                 | 토론 및 질의<br>지정토론 : 이정호       |
| (좌장 : 은홍배)                  |                             |
| 5:00 - 5:30                 | 노년기의 우울장애<br>연자 : 정인파       |
| 5:30 - 5:35                 | 토론 및 질의<br>지정토론 : 우행원       |
| 5:35 - 6:05                 | 노년기의 정신분열장애<br>연자 : 연병길     |
| 6:05 - 6:10                 | 토론 및 질의<br>지정토론 : 김현우       |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평의원회

1. 1994년 5월 11일 타워호텔 한국관에서 임원진 상견례 및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Newsletter 편집 및 추계학술대회 일정 및 연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결과 추계학술대회는 11월 18일 인촌기념관에서, 연제는 '노인환자의 정신상태의 평가'(Mental Assessments of Elderly Patients) 및 특강으로 '노인환자에서 신경심리검사의 임상적용'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날 진행비로 이정호회원이 50만을 찬조해주셨습니다.
2. 1994년 7월 14일 1차 월례집담회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광주세브란스병원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연제로 이회상회원이 「노인의 정신분열병에 대한증례보고」와 공석원, 조맹제회원이 「노인의 주요울증에 대한 증례보고와 이와 Modified ECT」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날의 진행비는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에서 찬조해주셨습니다.
3. 1994년 9월 8일 2차 월례집담회 및 임원 모임이 용인정신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연제로 김윤희회원이 「노인을 위한 사회환경적 Service 및 치료 Program」, 한일우회원이 「한국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및 치료프로그램의 현황과 향후 노인복지 정책개발 방향」을 발표해주셨고, 이어 열린 임원모임에서는 추계학술대회 준비상황과 Newsletter 창간호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의 진행비는 용인정신병원에서 찬조해 주셨습니다.
4. 회원 여러분께서는 입회비(2만원)와 연회비(3만원)를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 온라인 계좌번호

예금주 : 김윤희(노정희)

국민은행 : 083-01-0268-337

### - 알립니다 -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1월, 4월, 7월, 10월, 4회 회보를 발간 합니다. 뉴스레타 원고는 일년 365일내내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여러분께서는 노인과 관련된 유익한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회보발간시 회원의 성명과 아울러 소정의 원고작성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150-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  
고려의대부속 구로병원 신경정신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총무부장 정인과  
Fax : 02-852-1937

## ● 학술부 소식 ●

###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발전방향

1. 노인전문질환 및 전문연구분야의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 치매에 대한 후유장애 평가 기준안 마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노인정신건강예방, 조기치료 및 재활치료 강조
2. 회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업  
: 국·내외 노인관련학회 안내 및 노인자료에 대한 우선적 협조  
치료의 혜택 : 긴급후송 및 각종검사시 우선적 협조
3. 각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연락과 건의에 관한 사항  
산하관련 연구학회 및 노인복지 기관과의 유대강화
4.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연구학회로의 정식가입 및 타연구학회와의 긴밀한 협조
  - 국내의 기존의 노인병 관련학회와의 유대강화
  - 국제 노인병 관련학회 가입으로 원활한 정보교환 및 국제적 위상도모
  - 정부관련 및 산학협동에 관련된 노인관계 연구 Project시 학회차원에서 적극적 협조모색

### 국제학회 소식

1. Americ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미국 노인정신의학회) 8th Annual Meeting and Symposium  
일 시 : February 17-20, 1995  
장 소 : The Ritz Carlton Hotel, Cancun, Mexico  
주 제 : Partnerships in Care of the Older Patient  
주 소 : AAGP Central Office, P.O. Box #376A, Greenbelt, MD 20768, U.S.A.  
Registration Dedline January 18, 1995
  2.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IPA) 7th Congress  
일 시 : Pre Congress Tour : October 23-27, 1995  
Pre Congress Meeting  
30th Annual National Conference of the Australian Association of the Gerontology : October 26-28, 1995  
Main Meeting : October 29-November 3, 1995  
장 소 : The Park Grand, Sydney, Australia  
주 제 : Spirit in Aging  
IPA 주소 : 3127 Greenleaf Avenue, Wilmette, ILLINOIS 60091, U.S.A.  
Tel: 708-866-7227 Fax. : 708-866-6984
- 7th IPA CONGRESS WYETH CLINICAL MEETING SERVICE : P.O. BOX 148, PARAMATTA, N.S.W. 2124, AUSTRALIA  
Deadline for Submission of Abstracts : March 30, 1995



## ■ 제 1 회 월례집담회 ■

### 주요우울증환자 증례 및 노인 환자의 ECT 고찰

공석원(서울의대 정신과)

#### 1. 주소 및 입원 과정

64세 여자 환자로 “갑갑해서 못살겠다. 살아서 무엇 하느냐”, “내 머리 속에 고통이 가득 들어 있다.”, “팔에 저린 기운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하던 중에 ‘94년 5월 25일 농약(DDVP:유기인 제제)을 마시고 자살 시도를 하여 입원하게 되었다.

#### 2. 현 중

K대 병원(92.12. ~93.4.)과 서울 대학병원(93.4. ~93.8)에 2회 입원 치료를 받았던 주요 우울증 환자로 약물 치료(imipramine 150mg, haloperidol, 5mg)후 증상 다소 호전되어 퇴원을 하였고 이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 치료를 받았다. 외래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구갈이 심하여 약을 잘 먹지 않아서, imipramine, trazodone, dexedrine으로 바꾸었지만 계속 ‘입이 마른다. 약 먹어도 잠을 잘 못 자겠다.’고 하며 약 먹기를 거부했고 이문제로 남편과 다투는 일이 많았다. 외래에서는 ECT를 권유하였으나, 보호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고 약물 치료를 계속하였다. 송곳으로 찌르거나 끈을 목에 감고 죽게 해 달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가족들은 눈에 뜨이는 위험한 물건들은 모두 감추어 놓을 수밖에 없었고, 방에 밖에서 문고리를 하여서 가족들이 외출시에는 방에만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생활을 하던 중에, ‘94. 5. 25. 오전 10시경 남편이 외출을 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환자가 욕실에서 나오면서 토하고 있었으며, 숨겨 놓은 농약(DDVP:유기인 제제)을 확인하여보니 한 스푼 정도 없어진 것을 알고 즉시 소금물을 먹여서 토하게 한뒤 인근 병원의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하였다. 당시 의식은 명료했다고 한다.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에 다음날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게 되었다.

#### 3. 가족력

남편(73)은 서울생으로, 고졸이며 목수로서 첫부인과는 큰아들(58)을 하나 낳고 47년 전에 사별하였다. 이후 환자와 결혼을 하였고, 3남 2녀를 더 두게 되었다. 둘째아들(현재 44세)은 환자가 낳은 첫아이이다. 19세에 정신 분열병 진단을 받고 6~7년간 국립 정신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91년 집을 나간 이후 행방과 생사를 모르고 있다. 환자는 둘째아들이 나간 이후로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 4 정신 상태와 검사 소견

150cm정도의 작은 키로 뚱뚱한 편이다. 흰머리에 단발로 개인 위생은 양호하였으며, 눈을 쫓그리며 인상을 쓰며 이야기를 하였다. 흥분되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못하고, “아이고, 나 죽어, 나 좀 살려줘.(배를 움켜쥐고서) 뱃속에 아직 독물이 있어 창자가 썩어서 목으로 넘어온다.”(손가락을 입속으로 깊이 넣으며) 아이고 내머리속에 고통이 팍 찔어.”라는 망상에 가까운 호소를 하였고 살아서 뭐하느냐면서 제발 좀 죽게 해 달라고 했다. 환각은 모두 부인하였고, 의식은 명료했으며 내원전 응급 처치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기억에 대한 손상은 없었다. 기타 판단력의 장애는 없는 듯하였다. 병색은 없었다.

## 5. 치료 및 입원 경과

5월 27일 입원하여 Imipramine 25mg, Doxepine 50mg을 투약하였으나, '계속 같은 약만을 주고, 그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는다며' 약을 거부하였다. 환자의 가족들에게 ECT에 대한 설명과 자살 시도를 하였던 점, 오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입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설명하였고 동의를 구하였다.

6월 1일에 환자도 ECT에 대한 동의를 하였고, 입원 당시에 호소하던 '배속에 독물이 남아 있느냐 수술을 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되었다. ECT를 위한 준비를 하였고, 기타 검사 소견이나 내과적인 문제는 없었고, 마취과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6월 7일 #1 ECT를 시행하였다. 이개에서 11inch위에 Bilateral로 전극을 부착하고, 30분 전에 glycopyrrolate 0.2mg을 근육주사하였다. 수술장회복실에서 마취과 의사가 Pentotal 175mg(몸무게는 59kg)으로 마취를 Induction하였고 원팔에 Cuffing을 하고 succinylcholine 75mg을 주었다. faciculation이 끝나고 곧 100V의 5square wave pulse로 0.5초 동안 충격을 주었고, Sz.가 관찰되지 않아서 40초 후 110V 0.5초로 2차 자극을 주었으나 반응이 없었다. 마취에서 회복을 하면서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20여분간은 혼동된 상태였다. 기억력에 변화는 없었다.

6월 8일 환자는 주관적으로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다고 하였고 agitation은 크게 호전되어 있었다. 감정상태도 크게 우울해 보이지는 않았다. 두통은 더 이상 호소하지 않았으며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의 변화는 없었다.

6월 9일 #2ECT 130V 0.5초로 자극을 하여 시행하였다 10초간 Clonic SZ.가 있었고, 심박수 120여회 수축기 혈압이 170까지 상승하였다. 회복후 두통의 호소는 없었다. 기억력의 변화는 없었고 정동상태는 많이 안정된 모습이었으나 안절부절한 모습이나 이전과 같이 독물이 들었다고 하거나 머릿속에 고통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하지 않았다. 그같은 호소하며 Doxopine의 복용을 거부하였다.

6월 11일 #3 ECT 130V 0.5초로 자극하였고 이번에는 뚜렷한 Conic SZ.는 관찰을 할 수 없었다.

6월 13일 #4 ECT 130V 0.7초로 자극을 하였다. 3초간의 Tonic SZ.의 50초 가량의 Clonic SZ.가 있었다. 자신의 문제는 둘째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 생긴 것이라고 말을 하였으며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하였다. 약은 Trazodone 25mg 을 자기 전 투약을 하였다.

6월 15일 #5 ECT 130V0.5초로 자극하였고 Clonic SZ. 가 15초 지속되었고 인지 기능의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다. Tonic SZ.만약 있었다. 이제 다 나은 것 같다며 객관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이었으나 trazodone 50mg을 투약하였다.

6월 20일 #7 ECT 110V 0.5초로 자극하였고 SZ. 는 없었다. 이제 다 나은 것 같고 힘이 드니 이제 그만했으며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6월 23일 #8 ECT 110V 0.5초로 자극하여 시행하였고, Clonic Sz.가 13초 있었다. 정동 상태는 안정된 것으로 판단 되었다.

6월 28일까지는 Trazodone을 100mg까지 증량을 하였으며, 구갈은 없었고 수면도 양호하였다. 단지 bruxism은 변화가 없었으며 환자는 이것도 좀 고쳐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편안해 보였다.

7월 2일 퇴원하였다.

## 노인 환자의 ECT

### 1 개요

반세기 이상의 임상적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ECT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을 받아 왔고 특히 우울증에서 치료적 효과는 탁월한 인정을 받아 왔다. 그러나 많은 일반인들과 적지 않은 수의 임상가들이 ECT에 좋지 않은 선입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왔고 현재도 ECT에 대한 필요 이상의 경쟁심은 남아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그래서 최근들어 ECT의 안전성이 임상가들과 일반인들에게 교육되고 있다. 임상에서는 점점 노인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은 약물대사등의 신체적 특성상 약물 치료의 부작용에 취약하기 때문에, ECT가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주장들이 많다. 더구나 우울증 자체가, 심각한 신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입원한 노인들의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요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위험성이 적은 ECT를 꼭 고려해야 한다. 노인에서의 ECT의 효능은 잘 정립된 상태이고 다른 치료 방법과 비교할 때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일 것이다.

### 2. 적응과 금기

#### (1) 적응증

원칙적으로 노인 환자에서의 적응증은 젊은 환자에서와 같다.

- a. Affective disorder(Maj. Depression & Mania)
- b. Schizophrenia
- c. Severe Organic Affective Psychosis
- d. 기타: 1. Depressive Pseudodementia  
2. Mood disorder with agitation & anxiety  
3. Delusionary depressed older pt  
4. Depression with vegetative sign but without cognitive verbal expression of dysphoria  
5. Agitated Depression  
6. Parkinsonism with psychosis or paraphreniae. Less favorable :  
1. Long duration of history  
2. Pre-existing dementia or somatization disorder

#### (2) 금기

Brain tumor 등에 의한 ICP 증가가 있을 때는 절대적인 금기이다.

이외에는 상대적인 금기이다.

- a. Recent MI
- b. Congestive heart failure
- c. Arrhythmia
- d. Hypertention
- e. Impaired pulmonary function

#### (3) Adverse effects

- a. Mortality rate: 1/10,000~1/100,000

주로 심혈관계의 합병증이 원인이다. 드물게는 Prolonged seizure activity, Status epilepticus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b. Confusion: 다음의 인자에 관련이 있다.

1. Unilat. vs. Bilat. application
2. Brief pulse vs. Sine wave
3. Length of sz activity
4. 이전까지 치료받은 횟수

c. Memory problem: Pre-existing memory impairment는 ECT의 금기사항이 아니다.

Unilateral이 memory impairment 가 적다. 그러나, 치료도중 문제가 생길때를 대비하여서는 bilateral을 먼저 시행하기도 한다. 기억력 장애의 관점에서만 보면 Rt. unilat. brief pulse 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3. 방 법

#### 1) Pre ECT Work Up

CBC, Electrolyte, Bun/Cr, LFT, TFT, U/A, EKG, CPA, Brain imaging study, EEG medical stability에 대한 physician의 기록  
치과 적인 문제의 확인.(전국에 의한 Temporaries의 직접적인 자극은 근육이완제에 이완되지 않는다.)

#### (2) Procedure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SZ의 역치도 상승한다.

통상 6-9회를 시행하는데, 영국에서는 주 2회를 하고, 미국에서는 격일로 주 3회를 시행하는데, 효과는 전체의 시행 횟수와 연관이 있는 듯하다.

a. 약물 전처치:

anticholinergic agents  
atropine  
glycopyrrolate

b. 근육이완제의 사용 :

Succinylcholine을 0.5-1.0mg/kg로 사용을 한다.

(사용 목적은 심혈 관계의 부담을 줄여서 혈압과 심박수의 상승을 줄이는 효과와, 골다공 등이 많은 노인 환자에서 골질을 예방하는 것이다.. 특히 노인 환자에서는 순환이 느리므로 발가락까지 fasciculations이 생기는 것을 꼭 관찰을 하여서 근이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기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c. 산소의 공급:

100의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하여서 Sz.중의 뇌의 산소 요구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능의 평가도 미리 시행되어야 한다. ECT 도중에는 pulse oxymeter를 사용한다.

d. Concurrent Medication

1. Lithium : succinylcholine에 의한 muscular blockade를 연장시킬 수 있다.
2. TCA계 약물 : 현재 논란이 많다.
3. Benzodiazepine계 : Sz.의 역치를 높인다. 가능하면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4. Maintenance ECT

치료의 schedule이 끝나고 1주일 후에 시행한다. 그 다음의 치료는 기간을 늘려서 2주후, 다시 세번째 치료는 3-4주후 시행하여서 4-6회/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

## References

- Abrase R: Electroconvulsive Therap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8
- Abrase R, et al: Bilateral versus Unilateral ECT : Efficacy in Schizophrenia AJP 140:463-465, 1983
- APA Task Force Report on Electroconvulsive Therapy: The Practice of ECT: Recommendations for Treatment, Training and Privileg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0
- Fogel s: Electroconvulsive Therapy in the elderly: a clinical research agonie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3:181-190, 1988
- Koenig H,Shelp F, Goli V, at al: Survival and health care utilization in elderly asocial in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J Am Geriatr Soc 37:599-606, 1989
- Salesman C: Electroconvulsive Therapy in the elderly patient. Psychiatry Clin North Am 5:191-197, 1982
- Welch CA: ECT. in Treatment fo Psychiatric Disorders: A Task Force Report of the AP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9, 3:1803-1813

### 대한노인정신의학회지에 대한 안내

대한노인정신의학회지 창간호가 1995년에 발행됩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지는 특집, 종설, 원저, 증례보고, topic review등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저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의 작성요령은 다음호 Newsletter에 자세히 기재됩니다.

보내주실 주소 및 대한노인정신의학회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10-744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학술부장 조맹제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라 칭한다.

#### 제 2 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서울 특별시에 두며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3 조 (목 적)

본회는 노인정신의학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사 업

#### 제 4 조 (사 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가. 노인정신의학과 관련된 연구
- 나. 학술 행사의 개최
- 다. 학술지 및 도서의 발간
- 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 마. 학문의 국제적 교류
- 바.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 3 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통신회원으로 구분한다.

- 가. 정회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원서 및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
- 나. 일반회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일반회원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원서 및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
- 다. 특별회원 : 신경정신의학과 관련된 인접분야에서 전문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원서와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
- 라. 통신회원 :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회원.

#### 제 6 조 (회원의 가입)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원서 및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회원의 가입여부는 정회원 3인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의 입회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제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회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간행물을 배부받을 수 있다.

제 9 조 (회원 자격의 유지)

회원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3년 이상 본 회의 행사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0 조 (임 원)

본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 명

나. 부회장 2 명

다. 평의원 10명 내외

총무, 학술, 기획으로 나누며 각 부에 부장을 둔다

라. 감사 2명

제 11 조 (임원 선출)

가.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부회장 및 평의원은 회장이 지명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다. 평의원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총무부 : 본 회의 일반 및 회계와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업무

2) 학술부 : 학술 연구 및 행사와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업무.

3) 기획부 : 본 회 사업의 기획 관리 및 섭외 활동 업무.

라. 감사 :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가.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나. 임원이 보선된 경우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4 조 (회 의)

본 회의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가. 정기총회

나. 임시총회

다. 평의원회

제 15 조 (총회의 성립)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6 조 (총회의 개최)

정기총회는 연 1 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정회원 1/5 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제 17 조 (평의원회의 개최)

평의원회는 연 4 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최할 수 있다

제 18 조 (의 결)

총회 및 기타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및 폐지

나. 회장 및 감사 선출

다. 결산의 승인

라. 중요사항

제 20 조 (평의원회 결의사항)

가. 회원의 입회심사

나. 총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

다. 연구 활동 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입회비, 연회비, 기타 특별찬조비의 결정

마.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바.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사. 기타

제 6 장 재 정

제 21 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입회비 및 연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제 22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1년으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3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칙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24 조

본 회칙은 1994년 4월 8일부터 발효한다

## 편집위원회 소식

1. 1994년 5월 11일 타워호텔 한국관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newsletter 편집에 관한 논의 결과 newsletter 발행은 계간지로 하고 형식 및 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기로 결정되었으며, 편집위원 구성은 총무, 학술, 기획부장이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1994년 6월 11일 타워호텔 한국관에서 newsletter의 편집방향 및 편집위원 구성에 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Newsletter의 작성은 총무, 학술, 기획부에서 상호협조하에서 작성하기로 하며, Newsletter 편집위원장은 오병훈(기획부장), 편집위원으로는 총무부(최종혁), 학술부(김승현), 기획부(이희상) 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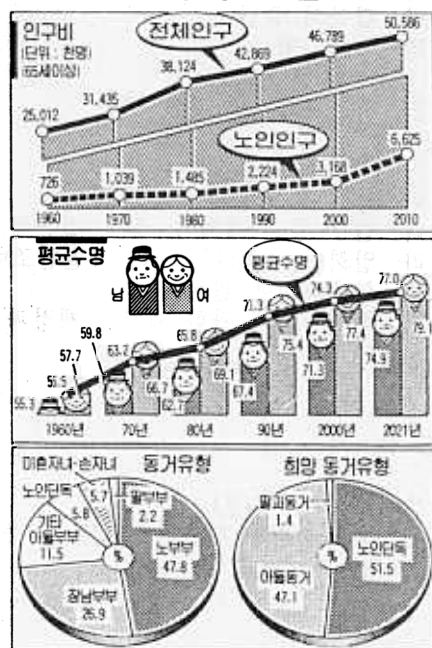
3. 1994년 9월 1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차 편집회의에서 구체적인 newsletter의 편집방향과 1차원고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 노인정보

### 취업老人 8만여명

우리나라 60세이상 노인인구는 1994년 을 3월말 현재 3백 80만명.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의 조사결과 이중 절반이 넘는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양 및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으로 「환갑을 넘긴 청춘」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 여기에서 각 기업의 인원감축에 따른 조기퇴직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노년기 외로움 등도 노인취업 열기를 북돋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인은 8만여명으로 취업희망노인의 4.2%정도에 불과, 고령자고용촉진법등 정부의 노인취업 대책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 한국의 노인



(참조: 한국노인문제연구소, 60세이상노인 1,569세대 표본조사)

### 노인정신질환치료시 입원 가능한 병원

#### 1. 은혜병원

주소 : 404-190 인천시 서구 심곡동 산27-2  
Tel. 032)523-2268, 524-8833-4 Fax. 032)524-4639

담당자: 김혜원 선생님

#### 2.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

주소 : 464-800 경기도 광주읍 탄벌리 696-6  
Tel. 0347)61-1890 Ext. 110 FAX. 0347-64-8662

담당자 오병훈 선생님

#### 3. 국립서울정신병원

주소 : 133-223 서울 성동구 중곡동 30-1  
Tel. 457-0905 Fax. 452-0162

담당자 정은기 선생님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명단 ■

|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
| 강병조 | 대구시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 병원 정신과               | 053-420-5752  |
| 강봉선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06-5 강봉선 신경정신과           | 0371)44-3884  |
| 고대관 | 서울시 중구저동 2가 85번지 서울백병원 신경정신과          | 270-0069      |
| 고효진 | 카톨릭의대 대전성모병원 신경정신과                    | (042)252-9331 |
| 곽동일 |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 고려의대 구로병원               | 864-5111      |
| 곽태섭 | 경남 진주시 대안동 9-7 곽 신경정신과 의원             | 0591)43-8875  |
| 기백석 | 서울시 중랑의대부속 뿔동병원                       | 260-2172      |
| 김갑중 |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68 한일병원                | 042)863-4533  |
| 김광식 | 성동구 중곡동 166-17                        | 467-2323      |
| 김광윤 | 강릉시 옥천동 220-4 김신경정신과 의원               | 0391)648-2152 |
| 김규태 | 경북 점촌시 중앙동 244-17 김규태 신경정신과 의원        | 52-1072       |
| 김상국 | 인천시 서구 심곡동 산 27-2 인천신경정신병원            | 524-8833-4    |
| 김상덕 | 부산시 동태구 권장동 105-51 영진의원               | 051)522-1751  |
| 김승기 | 경북영주시 영주4동 520-15 김신경정신과              | 635-3890      |
| 김승현 |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고려의대안암병원            | 927-5111      |
| 김영철 | 이대 목동 병원 신경정신과                        | 650-5018      |
| 김윤희 |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용인정신병원                    | 0331)281-8251 |
| 김인  | 서울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고대의대안암병원 정신과      | 920-5815      |
| 김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 산동 300, 전주예수병원          | 0652)80-0114  |
| 김준홍 |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12번지 메리놀병원신경정신과         | 051)463-2335  |
| 김찬형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영동세브란스병원 정신과       | 3450-2380     |
| 김창현 | 서울중구 을지로 6가 18-79 국립의료원               | 265-9131      |
| 김현식 | 122-010 서울 은평구 용암동 산6, 서울시립정신병원       | 303-9111      |
| 김현우 | 충남 천안시 안성동 산 29 단국의대 정신과              | 0471)550-3929 |
| 류미경 |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표2리 115 성안드레아 병원          | 0336)636-8200 |
| 류성훈 | 충남 논산시 취암리 21-14                      | 32-2191       |
| 박경우 | 충남공주군 반포면 봉고리 산 1번지 법무부치료감호소          | 0416)53-2601  |
| 박노택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1-262 박신경정신과의원           | 923-7610      |
| 박동철 | 경기도 안양시 단안구 안양 5동 622-221 박동철 신경정신과   | 0343)85-0472  |
| 박민철 | 전북 이리시 동산동 원광의대 신경정신과                 | 0653)840-6002 |
| 박수봉 |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용인정신병원                | 0331)281-8251 |
| 박인옥 | 경기도 광명시 철산4동 467-7 철산BD 고려신경정신과       | 617-7575      |
| 박정환 | 대구 중구 동산동 동산병원 정신과                    | 053)250-7818  |
| 박주형 | 충주 을지로4가 161-5 덕윤빌딩 202호 박주형 신경정신과    | 275-9722      |
| 박준형 | 전남 순천시 중앙동 61-69 박준형 신경정신과의원          | 0661)51-1053  |
| 박정산 | 성동구 화양동 27-2 건대부속 민중병원                | 450-9558      |
| 반건호 | 부산 중구 대청동 메리놀병원 신경정신과                 | 051)461-2593  |
| 방필영 | 대구 중구 상서동 40 방필영 신경정신과의원              | 253-6610      |
| 서원벽 | 인천시 남구 주안4동 453-18, 신경빌딩 2층, 서원벽신경정신과 | 032-432-9911  |
| 신상철 | 경기 남양주군 소동면 외방리 174                   | 0346)591-6661 |
| 신재정 |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정신병원                     | 965-4471-7    |
| 심상호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1동 172-22, 고려신경정신과       | 0351)43-7847  |
| 안병주 | 연하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032)674-7409  |
| 안창호 | 동대문구 제기동 142-3 한참학 신경정신과의원            | 928-7878      |
| 연병길 | 강동구 길동 445 한림대학부속 강동성심병원 정신과          | 488-0111      |
| 오길성 | 성북구 심전동 5가 291-1 오길성 신경정신과의원          | 923-3237      |
| 오병훈 | 경기도 광주읍 탄벌리 696-6 연세의대광주세브란스병원        | 0347)61-1890  |
| 우병원 | 종로구 종호 6가 70번지 이대부속병원 신경정신과           | 760-5210      |
| 유계준 | 경기도 광주읍 탄벌리 696-6 연세의대광주세브란스병원        | 0347)61-1890  |
| 유완상 | 충북청주시 문화동 106-4 유완상신경정신병원             | 0431)52-7895  |
| 유원달 | 경남 마산시 합성동 772-5 이종욱 신경정신과            | 760-5210      |



|       |                                 |                 |
|-------|---------------------------------|-----------------|
| 윤 애 리 |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45 보성 플라자 3층 윤정신과  | 053)55-6568     |
| 은 흥 배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학병원 신경정신과     | 0345)453-7575   |
| 이 경 규 | 서울 성동구 중곡동 30-1 국립 서울정신병원       | 0652)250-1114   |
| 이 근 후 |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70 이화대학병원 정신과      | 457-0905        |
| 이 념 규 | 경남하동군 고평면 계천리 366-2 세종병원정신과     | 0595)83-7000    |
| 이 민 수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고려의대부속안암병원  | 927-5111        |
| 이 병 관 | 전북 전주시 중앙 1가 11 자혜신경과 의원        | 0551)55-6688    |
| 이 상 돈 | 경남마산시 한정동 722-5 이종옥 신경정신과       | 398-9428        |
| 이 상 연 | 서울 종로구 횡동 16 서울 적십자 병원 정신과      | 640-6010        |
| 이 상 열 | 전북 이리시 동산동 원광의대 부속병원 신경정신과      | 0653)840-6002   |
| 이 성 민 | 충북 옥천구 옥천읍 금구리 112-37 이성민 신경정신과 | 0475)33-5435    |
| 이 수 일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433-3781        |
| 이 영 호 | 서울시 중구저동 2가 85번지 서울백병원 신경정신과    | 270-0069        |
| 이 인 표 | 경기도 용인구 구성면 상하리 용인정신병원          | 0331)281-8251   |
| 이 정 규 | 의료법인계요의료재단                      | 0343)35-3333    |
| 이 정 호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과                 | 938-0010        |
| 이 종 섭 | 충북 충주시 교현동 620-5 건국 의대 부속병원 정신과 | 0441)645-2501   |
| 이 종 옥 | 경남 마산시 합성동 722-5 이종옥 신경정신과      | 0551)55-6688    |
| 이 현 재 | 종로구 종로 1가 17번지 북창BD 이현재신경정신과의원  | 735-7557        |
| 이 형 영 | 광주시 동구 학동 8 전남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 062)220-6140    |
| 이 흥 식 |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정신과               | 3450-1380       |
| 이 회 상 | 경기도 광주읍 탄벌리 696-6 연세의대광주세브란스병원  | 0347)61-1890    |
| 임 원 정 | 종로구 종로 6가 70번지 이대부속병원 신경정신과     | 760-5210        |
| 장 덕 환 |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129-5 장덕환신경정신과   | 0331)47-0555    |
| 정 상 곤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의대 신경정신과학 교실      | 0652)250-1390   |
| 정 은 기 | 성동구 중곡3동 30-1 국립서울정신병원          | 457-0906        |
| 정 인 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 고려대학부속 구로병원       | 864-5111        |
| 정 한 용 | 용산구 한남동 657-58 순천향 대학병원 정신과     | 794-7191~8      |
| 조 두 영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병원 정신과        | 760-1450        |
| 조 맹 제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병원 정신과        | 760-3155        |
| 조 성 남 | 충남 공주군 반포면 봉곡리 법무부 치료감호소        | 0416)857-2601-5 |
| 조 완 숙 | 종로구 세종로 1가 15701 삼보빌딩, 박종철신경정신과 | 735-0987        |
| 최 문 식 | 동대문구 청량리동 46번지 청량리정신병원          | 965-1171        |
| 최 정 옥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45-1 동의 의원원        | 035)867-5101    |
| 최 종 혁 | 서울 성동구 중곡 3동 30 국립서울정신병원        | 457-0905~9      |
| 한 상 무 | 경북 구미시 공단동 순천향대학 구미병원           | 0546)463-7051   |
| 한 상 엽 | 종로구 평창동 244-25                  | 283-2668        |
| 한 일 우 | 경기도 용인구 구성면 상하리 4 용인정신병원        | 0331)281-8251   |
| 한 창 학 | 한창학신경정신과의원                      | 928-7878        |
| 황 연 화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양평구보건소          | 0336)72-4518    |
| 황 익 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아동 전북대학병원 신경정신과     | 0651)250-1114   |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 장소 : 고려대부속병원 ● 일시 : 1994. 4. 8



October 1994(창간호)

##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

The Newsletter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